

교육과정을 통해 본 한국화교의 학교교육:

1995년과 2007년, 한성화교소학교를 중심으로

나여훈*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집단인 한국화교가 정체성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도구로서 화교학교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다.

한국사회에서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살아온 소수자집단인 화교는 한국의 배제적인 사회정책과 무관심한 교육정책으로 화교학교 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생산해왔다. 1999년 외국인 등록단체에서 각종학교로 인가 받게 된 화교학교 교육은 국제정세와 한국의 정책과 시각의 변화, 대만의 정체성과 교육의 변화, 그들 내부에서 진행되는 한국사회로의 동화 등의 이유로 인해 그에 알맞게 변화하고 있다. 그들이 여전히 학교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ethnic group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은 화교소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 서울 남성초등학교 교사, ruzzang@hanmail.net

1995년과 2007년의 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을 비교함으로써 화교사회를 둘러싼 변화를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장치로서 교육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화교학교 교육과정은 대만의 것을 기본으로 하므로 대만의 교육과정은 어떠한지 알아보고 현재 화교소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제어: 화교, 정체성, 교육

I. 들어가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한국의 화교들은 한국사회 속에서 1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한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장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일 뿐이었으며, 여러 가지 비하하는 말로 쉽게 불렸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그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 땅이고, 그들이 살아갈 곳, 황혼을 맞이할 곳, 그들의 후대가 살아갈 곳이 이 땅이라면 우리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조심스런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한국화교들에게는 그들만의 학교가 존재한다. 학교는 그 사회의 이념과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재생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임은 분명하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서, 또는 다른 민족으로서 살아가

는 사람들의 학교교육은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재생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국의 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민족적 소수그룹¹으로서 화교²의 정체성이 한국 한성소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현행 화교소학교의 민족정체성교육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는 한성화교소학교에서 제공한 시간표를 재구성한 교육과정표를 이용할 것이며, 대만의 경우와 비교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이는 각종 문헌을 통한 분석과 정리를 기본으로 하며, 대만의 교육과정은 대만교육부의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이용하였다.

현재 화교소학교는 어떤 교육과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떤 변

1 ethnic minority group의 우리말 번역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민족적 소수그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강상중(1997)에 의하면 ethnic group 또는 ethnicity는 국민국가 내의 종속적 하위집단 저변, 곧 국민문화(주류민족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문화집단들(예를 들어 이민, 난민, 소수집단 등)의 정체성을 의미하면서, 국민문화를 기반으로 삼는 내셔널리즘 개념과는 대립적인 함의를 갖는다. 한국의 화교는 분명 ethnic group이다. 그들의 고향과 국적 국가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주류민족 또는 국민으로는 편입하지 못한 채, 한국의 문화와 습관, 언어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들 나름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그동안 민족으로 번역해온 nation은 그 정치적·역사적 의미를 볼 때는 국민에 가까우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용어는 ethnic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ethnic을 민족이라고 사용할 때,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집단이 한민족이지만 본래 남한에서 살고 있던 주류 한민족과는 다른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님을 설명하기 애매해지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화교들도 대륙의 중국인이거나 대만의 중국인들과 거대하게 중화민족이라는 이름과 화교라는 커다란 네트워크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지만 그들만의 정체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음을 용어를 통해서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ethnic에 흔히 대치되어 사용되는 ‘종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2 본 논문에서는 F2, F5 비자를 소지하고 있거나, 혹은 한국으로 귀화한 대만 국적 소지 중국인으로서 한국에서 3~4세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을 한국화교로 보았다.

화가 있었는지, 대만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의 현황을 알아보고, 이러한 현황 파악을 통해 화교교육은 탈근대의 초국가주의와 글로벌리즘의 물결 속에서 어떠한 문제점과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결론 및 제언에서는 앞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화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봄으로써 화교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적 변화와 상생을 요구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다.

타자는 자아의 상대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유의미한 존재이기도 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타자가 되기도 하고, 소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를 비춰볼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정체성이란 사람들이 스스로 누구라고 여기는지, 또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기든스, 2003: 47). 어떤 한 사람의 민족성 혹은 종족성은 정체성의 다양한 원천들 중 하나이다. 개개인의 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어우러져 하나의 정체성을 이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수민족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과 정체성을 함께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다. 문헌자료를 통해 한국화교의 교육과 정체성을 논하다보니 그들이 느끼는 민족정체성과 교육현황, 교육문제들을 그들의 가슴과 입으로부터 직접 담아내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의 질적인 측면의 연구내용이 부족하다.

화교의 교육에 관한 논문이나 사례연구가 다양하지 못하고, 문서화된 화교학교 교육과정의 부재, 대만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학교수

준의 교육과정을 구하기 어려운 관계로 세세한 부분의 변화, 교육목표와 교육내용, 다양한 행사활동을 통해 현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화교학교의 교육과정 변화만을 중심으로 화교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의 문제를 짚어보다 보니 화교사회의 정체성을 이루는 다양한 측면의 조건들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II. 한국 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의 변화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민족적 소수자집단에 대해 배제정책을 시행해왔다. 초국가·초민족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사회에 새로 편입되어가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적이며 인권적으로 올바른을 지향하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나, 오랜 시간을 한국에서 살아온 화교들은 과거에 그러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으며 사회적으로 완벽히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 땅에서 이렇게 타자화된 화교들은 그들을 제외한 한국인들을 다시 타자화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전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화교학교를 통해서이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주류 한민족은 국가의 의무교육을 통해 국민으로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전수 받고 생산해나갔다면, 한국의 민족적 소수집단으로서의 화교는 화교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재생산해왔다.³

3 알포트(1993: 49)에 의하면 5세가 되면 어린이는 자신이 집단에 속한 것을 알며, 어떤 민족인지를 자각하게 된다. 9세나 10세 때는 자기 집단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해보

한국 화교학교는 사실상 대만의 「교민교육규정(僑民教育規定)」에 의해 대만의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며, 지역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한국어 시간을 추가하여 가르치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 한 절⁴의 수업시간은 40분, 중·고등학교는 45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교학교에서 쓰이는 교과서는 본국의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여 왔다. 수업을 진행할 때 쓰이는 언어는 중국어로서 필기는 번체자로 한다. 학사일정 또한 대만의 것을 따라 운영되고 있다. 교과목상의 민족교육 외에 국경일과 춘절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갖고 학생들에게 중화문화를 알리고 몸에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다(나가이, 2004: 59).

이렇게 한국의 화교학교는 모국의 언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적 전통에 대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므로 그 자체가 민족성의 상징으로 간주된다(장수현, 2001: 12). 사실상 한국정부의 화교교육에 대한 방임정책 덕분에 이러한 민족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다.

1. 한성화교소학교의 교육과정 변화

교육과정은 시대의 요구를 담는다. 화교소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만의 교육과정에 의거하므로 그 변화에 따라 같이 변화해왔을 것이다. 그러나 화교학교가 한국에서의 지역적,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변화는 화교학교를 둘러싼 주변상황

다는 열렬한 내집단에 대한 충성을 먼저 배운다고 한다. 즉 어떤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어린 이에게 보상을 주고, 이 보상은 충성심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에의 소속감은 교육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김왕배(2003)에 의하면 민족주의의 형성을 위해서는 신화, 전설 등의 상징과 활자와 인쇄, 교육과 미디어들의 학습기제들이 동원된다.

4 절節은 우리나라의 한 차시에 해당하는 말이다.

과 요구사항의 변화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화교의 상황은 IMF를 기점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외환위기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화교에 대하여 재조명을 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상황에서 국내 외국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러한 요구는 외국인의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졌다. 1999년 3월 8일 개정된 「교육인적자원부령 779호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외국인학교)에서는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치·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인가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장기 거주하거나 영주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2002년 4월 18일 김대중 대통령이 정식으로 대통령령 제17579호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수정령」을 발포하여 “F2 장기거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만 5년 이상 거주한 자 및 해당자의 20세미만의 자녀, 그리고 합법적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F5 영주권을 부여”⁵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비롯한 화교들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대륙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화교들의 경제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등 화교사회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화교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화교학교의 교육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가정을 세울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의 화교학교 교육과 이후의 화교학교교육을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또한 대만은 2006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행하였다. 본국의 교육과

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 법령자료실 참고.

http://www.immigration.go.kr/HP/COM/bbs_03/BoardList.do

정 변화가 화교학교의 교육과정에 가져왔을 변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한성화교소학교의 교육과정을 중

표 1 한국한성화교소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년별 수업시수(1995년 3월)⁶

과목 \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生活與倫理		-	-	-	1	1	1
健康		-	-	-	1	1	1
國語	國語	6	6	6	6	6	6
	說話	1	1	1	1	1	1
	閱讀	-	-	1	1	-	-
	作文	-	-	2	2	2	2
	寫字	2	2	1	1	1	1
數學		4	4	5	6	6	6
社會		2	2	3	3	3	3
自然		2	2	3	2	2	2
工作		2	2	-	-	-	-
唱游 ⁷		3	3	-	-	-	-
美術		-	-	2	1	1	1
音樂		-	-	1	1	1	1
體育		-	-	2	1	1	1
視聽		1	1	1	-	-	-
勞作		-	-	1	1	1	1
컴퓨터		-	-	1	1	1	1
韓國語		-	-	1	2	2	2
英語		-	-	1	1	2	2
級會		-	-	1	1	1	1
합계		23	23	33	33	33	33

6 석미령(1995: 39)의 교육과정 배치표를 재구성하였다. 이 논문에서의 한 절은 45분이며, 음영 부분의 교과목은 2007년의 교육과정에서 변화되었거나 폐지된 과목이다.

7 음악교과와 체육교과의 통합교육으로서 1, 2학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심으로 하고, 석미령(1995)의 논문에서 제시된 1995년의 교육과정과 2007년도에 실시된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한국한성화교소학교의 교육과정과 학년별 수업시수(2007년 2월)⁸

과목	주당 수업시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國術		1	1	1	1	1	1
生活		2	2	-	-	-	-
國語 ⁹	國語	6	6	7	7	6	6
	生活會話	2	2	1	1	1	1
	常識會話	2	2	1	1	1	1
	會話	-	-	1	-	-	-
	漢語拼音會話	-	-	-	1	1	1
	閱讀	-	-	1	-	-	-
	作文	-	-	2	2	2	2
	寫字 ¹⁰	-	-	1	1	1	1
數學		5	5	7	7	6	6
社會		-	-	2	2	2	2
自然		-	-	2	2	2	2
美術		1	1	1	1	1	1
音樂		1	1	1	1	1	1
體育		1	1	1	1	1	1
視聽 ¹¹		1	1	-	-	-	-
勞作		1	1	1	1	1	1
컴퓨터		1	1	1	1	1	1
韓國語		-	-	-	1	1	1
英語		-	-	-	-	2	2
課外活動		-	-	4	4	4	4
합계		24	24	35	35	35	35

8 한성화교소학교에서 제시한 각 학년 시간표를 통해 본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였으므로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문서화된 학년교육과정은 따로 없다고 하였다. 음영 부분의 교과목은 1995년 교육과정에는 없었던 교과목으로서 새로 추가되거나 변화된 것이다.

1995년과 2007년의 교육과정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 生活與倫理 과목이 폐지되었다. 2007년도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는 生活 과목은 社會와 自然의 통합교과이다. 이는 대만의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이 있다.
- 4~6학년에서 실시하던 健康 과목이 폐지되고, 대신 國術이라는 과목이 1학년부터 확대 실시되고 있다. 國術은 중국전통무술을 배우는 시간이다.
- 國語교육(중국어)에 배정된 시수가 늘어났으며, 교육방법과 내용이 다양해졌다.
- 數學교육 시간이 4~6시간에서 5~7시간으로 늘어났다.
- 社會와 自然 과목은 1~2학년에서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이 배정되어 있었으나 生活 과목으로 변화되면서 일주일에 2시간으로 시간이 줄었고, 3~6학년에서의 시수 또한 각각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 1, 2학년에서 音樂, 美術과 體育 통합교과로 실시하던 唱遊 과목은 폐지되고, 각각 音樂, 美術과 體育으로 나누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주일에 1시간씩 균일하게 실시하게 되었다.
- 視聽 시간은 1, 2학년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나 3학년에서는 폐지되었다.
- 영작교육과 컴퓨터교육이 1, 2학년까지 확대 실시되었다.
- 한국어교육 시간은 3학년 1시간, 4~6학년 2시간씩 교육하던 것이 3학년에서는 배정시간이 폐지되고, 4~6학년은 1시간씩으로 축소되었다.

9 국어는 말하기, 독서, 작문, 글씨쓰기를 포함한다.

10 서예를 연습하는 시간이다.

11 교무위원회에서 보내준 교학비디오를 감상하는 시간이다.

- 3학년부터 가르치던 英語를 2007년 3, 4학년 시간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실시하게 된 대만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다른 점이다.
- 3~6학년 級會가 폐지되고, 課外活動이 4시간씩 배치되었다.

이러한 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의 변화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바로 국어교육, 즉 중국어교육의 강화이다.

1) 언어관련 교과목의 변화¹²⁾

1995년의 교육과정을 보면 기본적으로 국어교육, 즉 중국어교육이 매우 중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어에 배당되는 수업시수가 7~6시간이다¹³⁾. 그러나 화교소학교의 경우에는 7~10시간을 국어교육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의 교육과정에서 더욱 눈에 띄는 것은 국어에 배당된 수업시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점과 그 내용이 세분화되었다는 점이다.

1995년에는 國語, 說話(말하기), 閱讀(읽기), 作文(쓰기), 寫字(붓글씨쓰기)로 구성되어 있었던 중국어 과목이 2007년에는 중국어말하기교육이 강화되어 生活會話, 常識會話, 會話 등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閱讀과 作文교육, 寫字 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10~14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중국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주당 1시간씩 실시되었던 1, 2학년 회화시간이 주당 4시간으로 늘어난

¹²⁾ 언어는 마치 민족 그 자체에 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민족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언어는 매우 모호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뚜렷한 구별짓기의 소재가 되며,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지표가 된다.

¹³⁾ 대만에서도 중국어교육을 중시하나 주당 배정시간은 6시간 정도이다.

점을 보면 저학년에서 중국어말하기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저학년에서의 중국어 사용능력 저하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말하기교육의 필요성은 3~6학년에서의 회화시간 역시 1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어난 점에서도 드러난다.

표 3 1995년과 2007년의 한국 화교소학교 국어교육과정 비교

1995년								2007년							
과목 \ 학년	1	2	3	4	5	6		과목 \ 학년	1	2	3	4	5	6	
國語	6	6	6	6	6	6		國語	6	6	7	7	6	6	
說話	1	1	1	1	1	1		生活會話	2	2	1	1	1	1	
閱讀	-	-	1	1	-	-		常識會話	2	2	1	1	1	1	
作文	-	-	2	2	2	2		會話	-	-	1	-	-	-	
寫字	2	2	1	1	1	1		漢語拼音會話	-	-	-	1	1	1	
합계	8	9	13	14	14	15		閱讀	-	-	1	-	-	-	
								作文	-	-	2	2	2	2	
								寫字	-	-	1	1	1	1	
								합계	11	12	16	16	16	17	

또한 눈에 띄는 점은 4학년부터는 한어병음¹⁴ 회화시간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만식 주음부호를 사용하는 화교들은 그들과 다른 발음기호와 글자¹⁵를 사용하는 중국대륙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따로 추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기를 중심으로 한 중국어교육의 강화라는 변화는 학생들이 일상생

14 중국어 발음기호의 하나로써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체계이다.

15 대만이나 홍콩은 번체자라는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와 같은 문자를 사용하는데, 중화인민공

활 속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그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사용습관의 변화가 단지 실용적인 측면을 초월하여 개개인의 의식상의 정체성과 더 나아가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면, 현재 화교학교에서 중국어교육을 통한 민족정체성 유지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¹⁶

이러한 말하기교육의 강조는 중학교로도 이어진다. 초급중학교 1~3학년에서 국문과정시수를 줄이고 華語라는 과목을 따로 개설하고 있는데¹⁷, 이는 교과목으로서의 중국어가 아닌 사용언어로서의 중국어교육이 중학교 단계에서도 계속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장수현(2001)의 연구에 의하면 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화교학교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왔다고 한다.

최승현(2000)에 의하면 한국화교들의 언어사용습관은 다음과 같다. 집, 학교(직장), 일상생활의 상황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해서 쓰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집에서도 중국어-한국어 혼용비율이 64.6%에 달하며, 중국어

표 4 한국화교의 언어사용습관

단위 : %

장소	중국어 전용	한국어 전용	중국어-한국어 혼용
집	26.5	9	64.6
학교(직장)	12.3	4.4	83
일상생활	8.8	15	76

화국은 간체자로 불리는 한자의 획수를 대폭 줄인 새로운 문자를 사용한다.

16 실제로 한성화교소학교에 가보면, 교사에 큰 글자로 “중국어로 말해요”라고 써 있다. 이는 표어를 통해 중국어사용을 장려해야 하는 현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17 한성화교중학교에서 직접 제시한 시간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2007년 2월 기준).

만 사용하는 경우가 26.5%이다. 가정이나 학교(직장)에서는 중국어만 사용한다는 대답이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대답보다 많았으나,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우심화(1999)는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의 비율을 30% 정도로 추산했으며, 이러한 한국인 어머니를 가진 학생들이 늘어남은 화교학교의 중국어 교육 변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은 같은 문화정체성을 갖게 되며 같은 집단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민족정체성은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언어의 변화는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고 언젠가는 변화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과 자신들을 일치시키려 하게 된다(임봉길, 1995: 156).

화교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한국이고, 그 시간이 오래된 만큼 한국어사용, 한국문화 즐기기, 한국사람과의 결혼 등을 통한 한국사회로의 무의식적인 동화가 계속 진행되며 가속화되고 있으나, 화교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재생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2007년 교육과정에 의하면 한국어교육시간은 4학년부터 시작되며 1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5학년부터 주당 2시간씩 가르치는 영어보다도 적은 시간이 배치되어 있다. 3학년에서 1시간, 4~6학년에서 2시간을 가르치던 1995년의 교육과정에서의 한국어교육 비중도 높지 않았으나, 2007년에는 3학년의 한국어교육 시간은 아예 없어지고 4학년도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은 눈여겨볼만한 변화이다.

중국어교육의 강화는 한국어교육의 축소 뿐 아니라 영어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95년에 3, 4학년 1시간, 5, 6학년 2시간씩 실시되던 영어

교육이 2007년에는 3, 4학년에 배정되어 있지 않다. 2006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실시한 대만 본국에서는 영어교육이 3, 4학년으로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배치된 시간 수를 살펴보면 3, 4학년 영어시간에서 빠진 시간이 모두 중국어교육에 할애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화교학교에서의 중국어교육이 매우 절실함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2) 기타 교과목의 변화

민족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이데올로기적 장치로서의 교육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교과수업이다. 수업이라는 독특한 문화적 관행을 통해서 민족은 안정적으로 재생산 및 변형의 과정을 가진다(남호엽, 2001). 언어 이외의 교과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화교의 정체성 부분과 관련지어 짚어 보도록 하겠다.

민족이나 사회적 정체성과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목은 바로 社會 교과목이다. 1995년 1, 2학년에서는 2시간 3~6학년에서는 3시간씩 실시되던 社會가 2007년에는 1, 2학년에서 生活이라는 교과목으로 自然과 통합되어 2시간씩 실시되고, 3~6학년에서는 2시간씩 편성되었다.¹⁸ 生活로의 통합은 대만 본국의 교육과정 변화와 관련이 있으나 시수의 감소는 상관이 없다.

대만의 한 소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의하면¹⁹, 自然과 社會 모두 주당 3시간씩 가르치고 있었다. 대만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社會 영역은 기존의 歷史, 地理, 公民과 道德이 모두 하나의 영역으로 합쳐진 것이다(답도경, 2002). 社會과는 자기를 둘러싼 주변환경과 사회에 대하여 이해하고, 세계

18 自然과 社會에서 축소된 시간도 모두 중국어교육에 배당되고 있다.

19 전병희(2005)의 글에서 제시한 대만 가오슝高雄 시의 한 소학교 3학년 어느 반의 시간표이다.

관을 배양하며 사회적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과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한국 화교학생들이 대만의 社會 교과를 그대로 배우는 것이 과연 社會 교과의 목표에 충실한 과정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社會과 교육내용과는 다른 한국화교의 상황에 알맞게 지역성과 현재성을 담보한 별도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다.²⁰

1995년 4~6학년에서 실시되던 健康 교과는 2007년 1~6학년까지 주당 1시간씩 실시되는 國術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國術은 중국 전통의 무술을 가르치는 과목이다. 이는 우리의 태권도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적인 교과의 배정과 교육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집단은 어느 정도의 규모와 제도화 정도에 도달하면, 예외 없이 깃발, 제복, 로고, 노래, 시나 소설, 연극과 영화, 역사상의 영웅이나 전적지, 다양한 유물들과 사적들 같은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구성원에게 경험시키는 제도들을 가지고 있다. 상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집합체의 존속성 자체와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호영, 2001: 57).

2. 대만의 교육과정과 한국의 한성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화교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만의 그것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화교학교의 지역성이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만의 「교민학교규정」 제24조에 의하면 “화교학교는 교무위원회와 교육부와 함께 각 지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여 알맞은 과정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별의 과정을 정하기 이전에 본국의

20 이는 社會과 학습을 통하여 주류사회에 동화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살아가는 주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함이다.

현행 각급 학교의 과정 표준에 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미령, 1995: 38).

그렇다면 대만의 교육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중화민국 95년²¹ 8월부터 시행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현재 대만은 9년 일관교육과정九年一貫課程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소학교(國民小學) 6년과 국민중학교(國中) 3년의 연계성을 강조한 교육과정이다. 연간수업일수는 200일 이상이며, 매 학기 20주, 주 5일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수준에서 제시하는 각 학년별 주당 수업시수와 학습영역은 다음과 같다.²²

표 5 대만의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시수

학년(年級) \ 시수(節數)	학습 총시수 (學習總節數)	영역학습시수 (領域學習節數)	탄성학습시수 (彈性學習節數)
1	22~24	20	2~4
2	22~24	20	2~4
3	28~31	25	3~6
4	28~31	25	3~6
5	30~33	27	3~6
6	30~33	27	3~6
7	32~34	28	4~6
8	32~34	28	4~6
9	33~35	30	3~5

21 중화민국, 즉 대만에서는 공식행사나 일반적으로 연도를 표시할 때 정부가 수립된 1912년을 중화민국 1년으로 한다. 중화민국 95년은 서기 2006년을 말한다.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공보실 홈페이지(http://www.roc-taiwan.or.kr/flag_flower.html)에서 참조하였다.

22 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 實施要點(自95年8月1日生效), 대만교육부 홈페이지(http://www.edu.tw/EDU_WEB/EDU_MGT/EJE/EDU5147002/9CC/9CC.html).

9년 일관교육과정은 총 8개의 학습영역으로 나누어지고, 학습영역 중 언어영역은 국어와 영어를 포함하는 영역으로서 교육과정시수 중 20~30%를 차지하도록 배치하며, 그 외의 여섯 영역은 각각 10~15%정도로 배정한다.

대만의 교육을 소개한 전병희(2005)의 글에 의하면 대만은 주 5일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공식적으로 오후수업이 없다. 대만 가오슝高雄의 한 소학교의 경우 3, 4학년의 교육과정 기준시수는 29시간인데 3학년의 경우 담임이 20시간, 기타 선생님이 9시간을 맡아 가르친다.

한국의 화교학교는 2007년 2월부터 3~6학년은 매월 2, 4주 토요일에 수업이 없다. 그래서 2, 4주 월, 화, 수요일에는 7교시에 과외활동 대신 토요일 수업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교과전담시간으로 10시간이 배정되어 있고, 담임은 과외활동시간을 제외하면 주당 25시간을 가르친다.

한국의 화교소학교 3학년 학생과 대만의 소학교 3학년 학생이 배우는 교과목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기준시수에서 차이가 난다. 한국의 화교소학교 3학년 학생은 주당 35시간을 학습하며, 대만의 경우에는 29시간이다. 이는 모두 학생의 학습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만 소학교의 경우에도 중국어교육에 비중을 높게 두어 주당 6시간을 공부하고 있으나, 한성화교소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교과만 6시간(시험시간 별도)이며, 이 외에 각종 중국어 관련 수업이 7시간이나 된다. 즉 일주일에 총 13시간을 중국어 학습에 배정하고 있다.

이는 현재 화교소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목표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동

시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그들이 생각하는 중화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며 잃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언어인 중국어이며, 화교학교는 중국어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학교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히 드러나게 하는 도구이며 민족의 일부로서 개인에게 심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한다(송기찬, 2004: 224).

한국의 화교소학교가 이렇듯 민족언어로서의 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상황과 달리 대만의 교육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민남어閩南語교육이다. ‘민남閩南’은 중국의 복건성福建省 일대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민남어는 이 지역의 방언이다. 복건성 지역의 주민들이 대만으로 이주해와서 대만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 국민당 집권시기에는 공식석상에서 표준중국어만 사용하였으나, 민진당의 집권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민남어가 쓰이며²³ 학교 교육과정에도 들어가게 되었다.²⁴ 이처럼 국어가 아닌 다양한 민족언어의 교육을 통한 공식화는 중국 본토와 다른 대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이러한 민남어 교육에 대하여 대만을 국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찬성하지 않는 한국화교들은 국적상의 조국으로부터 또 다른 소외감을 느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23 대만 대중교통 방송에서는 표준중국어, 민남어, 영어의 세 가지 언어 또는 중국어, 민남어, 객가어, 원주민어 등 네 가지 언어로 안내방송을 한다. 민진당은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의 일국一國 개념에서 벗어나 대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민남어의 공식화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국민소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은 민남어, 객가어客家語, 원주민어의 세 가지 언어 중 한 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과정에 대한 요강을 정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각 학교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중학교 학생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배울 수 있다(대만 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綱要 實施要點 3-3-3).

토착어교육과 더불어 대만에서는 새로운 역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제도교육의 틀에서 행해지는 역사교육에는 결국 국가와 사회의 관심, 가치관, 합의가 투영되지 않을 수 없다(김유경, 2002: 401). ‘중국 대륙은 대륙이고, 대만은 대만이다’라는 대만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대만 정치와 사회문화, 교육을 아우르는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었다.²⁵

1997년 9월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인식대만認識臺灣』이라는 역사교과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식대만』 이전의 학교에서 가르치던 역사교과서는 전체 분량의 95%가 중국사였고 5%가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대만사를 다루었는데, 특히 일제침략에 대한 저항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²⁶

2006년부터는 대만사와 중국사를 각각 별도로 교육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만의 역사인식과 정체성의 변화는 한국화교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대륙의 산둥山東을 고향으로 하는 한국화교들은 정서적 특성상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환영하지 않는다. 역사 및 지리교재의 경우, 점차 대륙에 대한 내용이 축소되고 대만의 지리와 역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한성화교중학교는 2000년부터 지리, 역사 수업에 한해 개정 이전의 교과서를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다(김기호, 2005). 『인식대만』 개설의 이유로 대만정부가 내세운 “국민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의 역사와 지리를 모르면서 한평생 가지 못할 수도 있는 중국을 자국의 역사와 지리로 교육 받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²⁷은 한국의 화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5 『매일경제』, 2005년 8월 8일.

26 하세봉(2000)은 『인식대만』 과목의 개설이 국민당의 정치적 양보와 변신으로 인해 가능했다고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

27 자유의 소리(SOH) 게시판에서 찾은 연합뉴스 기사에서 발췌했다(검색일: 2007년 6월 10일).

역사교육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과 장소에 대한 지식, 과거 사건들에 대한 평가 등을 학습하며(유혜자, 2006: 2), 전래동화, 전통, 문화 등을 통해 문화적 그리고 세계적 정체성이 학습되고 공유된다고 볼 때, 대만의 이러한 역사의식 변화는 한국의 화교에게 정체성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대부분 산둥에서 이주해 온 한국 화교들의 국적이 중화민국이 된 것은 결코 그들의 의지만은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보게 되는 상황이 온 것이다.

3. 한국 화교소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

한국의 화교사회에서 화교학교는 분명 그들 집단의 구심점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오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왔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화교사회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변하고 있으며, 화교학교 자체 내부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변화 요구에 직면해 있다. 화교학교와 화교교육은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1) 한국사회와 유리된 교육과정

한국의 화교교육은 본국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방식으로 민족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왔다. 그들의 ethnic identity가 강해지고, 본국의 교육과정에 충실할수록 현지국가, 즉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공간인 한국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키우는 교육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사회 재생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정치적인 동일시를 추구하는 정체성 교육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는 정체성 교육이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원용진, 1998).

한국 대학에 진학하는 화교학생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²⁸ 한국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도 전보다는 나아졌으나 화교학교 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진학하여 한국학생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얼마나 길러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화교학교 교육이 화교들의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만큼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박은경, 1996; 장수현, 2001에서 재인용)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사회에서의 학연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개인의 인적-사회적 자본이다. 어려서부터 계속 화교학교를 다니다보면 인간관계 또한 그 안에서만 형성된다. 내집단에서는 더욱 결속력이 강화될지는 모르지만, 한국사회에서 좀더 다양한 기회를 찾고, 다양한 길을 모색하여 살아나가기에는 그들 앞에 열려져 있는 문이 그만큼 좁다는 것이다.

2) 한국 화교사회의 변화

한중수교 이후 한국사회에 새로운 중국인들의 유입을 초래했으며 한국의 중국인사회도 기존의 화교집단과 새로 들어온 대륙 출신의 중국인들과 한국계 중국인들로 다양해졌다. 중국정부는 화교들의 국적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불간섭정책을 취하고 있다(장수현, 2001: 12). 기존의 화교집단 내부에서도 친중국과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륙 출신의 중국인들과의 관계 형성도 중요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는 한어병음교육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대륙 출신의 중국인도 아니고 대만인도 아닌, 한국화교

28 2004년 147명의 한성화교중·고등학교 졸업생들 중 16명만이 대만 대학에 진학했으며, 10여 명의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한 것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한국 대학으로 진학했다고 한다(김기호, 2005: 83).

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2000년 타이완에서 거의 반세기 동안 정권을 잡아왔던 국민당이 천수이볜陳水扁이 이끄는 민진당으로 교체되면서 해외 화교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삭감되었다(나가이, 2004: 83).²⁹ 이러한 변화는 교재를 비롯한 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타이완정부에 의존해왔던 화교학교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화교와 한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화교학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들도 화교학교에 재학하고 있다.³⁰

III. 결론 및 제언

같은 지역에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며 같은 생활양식을 공유해온 사람들로 “같은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 즉 ethnicity를 갖고,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함께 살겠다는 의지를 가질 때 그 집단에 대해 민족ethnic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임봉길, 1995: 140). 한국의 화교는 한국이라는 지역에서 중국어 내지는 한국어와 혼용된 중국어를 사용하고, 한국문화가 스며든 그들의 생활양식을 공유해왔으며, 그들만의 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하나의 민족집단ethnic group이다.

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은 한 집단에게는 절대적인 것일 수 있다. 한 집단

29 2008년 8년 만에 이루어진 국민당의 정권교체가 한국의 화교사회와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30 2007년 9월 1일 현재 전교생 357명 중 10명의 외국 국적 미소지자가 재학 중이다(외국인학교 재학생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자료실).

이 상징을 통한 동일시를 거쳐 집단으로 구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본다는 그것은 상상된 것이지만, 상상되었다는 것이 집단은 실재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집합적으로 자신들과 타자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렇게 규정된 정체성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실재적 결과들을 낳는다(정호영, 2001: 60). 화교라는 집단을 구성하게 한 상징은 중국적인 문화와 관습, 그리고 언어이다. 이러한 상징을 통해 구성된 유사성은 사회적 구성물이지만 사람들이 그 유사성을 믿고 그것을 준거로 삶을 조직해나가는 한, 유사성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실재가 된다(Jenkins, 1996; 정호영, 2001; 60에서 재인용).

대부분 한국화교의 고향은 중국 산둥성이지만, 국적은 대만이고 거주지는 한국이다. 한국사회는 역사적으로 그들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화교들을 집단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상징과 집단 정체성은 그들만의 학교를 통해 계속 유지-재생산되었다. 화교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의 변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다.

- 대만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한국화교의 현재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적절히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중국어교육의 강화 : 주당 10~14시간에 달하는 시간을 중국어교육에 배당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면서 중국어말하기 교육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어중심 교육과정 편성은 다른 과목 뿐 아니라 전체 교육과정시수를 증가시켰다.
- 國術 교육의 실시 : 중국의 전통무술 교육을 1~6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

쳐 실시하고 있다.

- 한국어 사용의 증가, 한국문화와 생활습관으로의 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학교교육은 이러한 동화의 진행을 의식적으로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둘러싼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교 학교에는 문서화되고 정리된 교육과정의 따로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교육과정표는 학교 측에서 시간표를 얻어서 본 연구자가 직접 전 학년 교육과정으로 정리하여 사용하였다. 좀더 체계적이고 공식화된 학교 교육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이런 작은 토대부터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둘째, 그들의 민족언어인 중국어교육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한국어 교육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진학과 취업을 하고 정당한 경쟁을 하려면 한국어 사용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셋째, 학생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해 배워야 할 사회과 학습이 지역성과 현재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한 사회화를 통해 사람들은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고 이해한다. 보편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과 더불어 그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화교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사회과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위해 한국 교육계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화교들에게 주어진 영주권은 법적으로 국민과 같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적 자격이다. 그러나 현재 화교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과

각종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화교학교의 학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³¹ 한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화교들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와 다른 그들을 배척하고 밀어내지 말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아갈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한국화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한국화교는 한국의 주류 한국인과 다른, 또한 중국대륙의 중국인, 대만의 중국인파도 다른 그들만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국사회 속에서 만들어왔고,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들어나갈 것이다. 화교 학교 교육은 그 중심에 있다.

31 국가인권위원회는 ① 다른 외국인파는 달리 명실상부하게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화교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교육권 증진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통해 권고되었던 점, ②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대만정부로부터 학력을 인정 받고 있다는 점, ③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이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의 언어 및 문화 등을 향유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고 그 해석상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이 명백한 점, ④ 화교들이 화교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의 문화유산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고 싶어 하는 소수민족의 바람이며 이러한 인권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화교학교가 학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한국인권홈페이지 <http://www.hrkorea.org>). 화교소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 학력인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에서는 2006년 2월 7일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화교소학교 졸업생은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외국인의 경우 졸업학교가 자국(예: 대만)에서 학력을 인정받는다면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학력을 인정 받아 일반학교에 전·편입학이 가능하고, 외국인 자격으로 특별전형 등을 통해 대학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교육관계법에 따라 학력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학교에 전·편입학할 수 없고,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교육인적자원부 질의·회신 사례집, 2006).

참 고 문 헌

- 강상중(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 외 옮김. 서울: 이산.
- 기든스, 앤서니(2003). 현대사회학(제4판). 김미숙 외 6인 공동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 김기호(2005). 초국가 시대의 이주민 정체성: 한국 화교의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유경(2002). 국민국가의 집단기억과 역사교육: 역사교과서. 창작과 비평 115. 396~411.
- 나agai, 미유키(2004). 화교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의 화교사회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남호엽(2001). 공간스케일의 관점에서 본 민족정체성 교육. 사회과교육 34. 한국 사회과교육연구학회. 110~126.
- 담도경(2002). 중화민국 사회과교육의 동향. 사회과교육 41. 167~176.
- 박은경(1996). 화교가 발붙이지 못한 땅. 통일된 땅에서 더불어 사는 연습. 또 하나의 문화 통일 소모임 엮음.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석미령(1995). 한국화교교육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송기찬(2004). 소수자로서의 재일동포: 민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한울.
- 알포트, 고든 W.(1993). 편견의 심리. 이원영 옮김. 서울: 성화사.
- 우심화(1999). 한국 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서울: 중국학증진.
- 원용진(1998). 정체성의 정치학. 문화연구이론. 서울: 한나래.
- 유혜자(2006). 역사교육활동이 유아의 국가 정체성 형성과 역사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임봉길(1995). 동북시베리아지역 퉁구스족의 민족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국제지역연구 3.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137~168.
- 장수현(2001). 한국 화교의 사회적 위상과 문화적 정체성. 국제인권법 4. 국제인권법학회. 1~30.
- 전병희(2005). 대만의 초등학교 교육. 교육마당 21. 교육과학기술부. 120~124.
- 정호영(2001).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

학교.

하세봉(2000). 대만의 정체성과 역사 찾기. *역사와 비평* 53. 243~266.

崔承現(2000). 韓國華僑史研究: 從“上國”國民到多層認同. 박사학위논문. 北京大學.

자 료

EBS(2005). *몰레랑스—차이 혹은 다름*. <배척의 땅 한국: 화교를 다시 본다> 편.

國民中小學九年一貫課程－暫行綱要. 89. 9. 30.(台). 教育部. 國字 第89122368號 令公布.

Abstract

A Research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Focusing on the Curricula at Hansung Overseas Chinese Primary School
in 1995 and in 2007

Na, Yeo-Hoon

(Teacher, Seoul Namseung Elementary School)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how the curricula in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in Korea, which are designed to reproduce and maintain the identity of a minor ethnic group, have changed.

The overseas Chinese society in Korea has been faced with several factors that demand it to change: the rapidly changing world situation, the changing policies in Korea, the change of the identity and educational policy in Taiwan, the influx of the new generation of overseas Chinese, and its effort to be assimilated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respond to various demands of change,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in Korea transformed their

curricula. To demonstrate the aspects of change, this research made a comparison between the curriculum in 1995 and that in 2007 at Hansung Overseas Chinese Primary School.

The curricula in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show that the overseas Chinese try to maintain their ethnic identity. Primarily based on the educational system in Taiwan, the curricula admit nevertheless variations appropriate to the actual situation of overseas Chinese in Korea.

Below are some methods that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take to maintain the ethnic identity.

Reinforcing Chinese courses: 10-14 hours per week are allotted to Chinese courses. As children are likely to speak Korean more and more in everyday life, speaking Chinese at school is accordingly being reinforced, and the education of Korean and English is relatively neglected. Due to the curriculum focusing on learning Chinese, the overall course hours has been also increased.

Teaching National Martial Art: All children from the first to the sixth grade learn Chinese traditional martial art.

These are several problems in the education of overseas Chinese and proposals to solve them. Firstly,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do not have the curricula in a written form. They would need to provide the more systematic and official conditions of education.

Secondly, while they make their best efforts to teaching Chinese,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might also have to offer effective Korean courses.

Thirdly, the social studies courses offered in the overseas Chinese school do not deal with the local and actual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that children currently live in and must thereby learn. What is needed is not only the education for the understanding of society and culture in general but also that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local society to which children belong. The discussions might have to be preceded on the levels of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for overseas Chinese children, and then, Korean educators would also have to show their concerns for this matter in order to develop the adequate curriculum.

We should acknowledge and even encourage overseas Chinese, who contribute to the diversity of the Korean society, to preserve their identity and to claim rights. The overseas Chinese in Korea have formed their own identity, which is neither same as that of Korean in the main stream society, nor that of Chinese in the main land and that of Taiwanese. They are continuing to form their identity and will continue to. The overseas Chinese schools must continuously transform themselves through more practices and researches.

Key words: overseas Chinese, identity, education